

2024-5호 | 98문~107문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2024-5호를 반갑게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봅니다.

샬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광 목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따뜻한 5월을 지나가면서도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기어진 수려한 수목들이, 수 많은 잡초로 인해 그 ‘맵시’가 가리어 지는 모습입니다.

얼마전 주일설교에서 ‘꽃 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주요한 내용은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외쳤다고 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나 다움은 감춘 채 다양한 세상의 요구에 나를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울긋불긋 솟아난 잡초들이 화단의 자태를 감추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도 원수가 뿌리고간 가라지(마 13:25)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잊어버리진 않았나 묵상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확신 가득한 선포(벧전 2:9)에 우리의 귀를 기울려야 합니다. 우리가 잊은 ‘자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뿌려진 세상의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라는 수식어와 함께 세상으로 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5~6월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피밀 5호에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담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가 바뀌어지고, 이를 통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길 소원합니다.

2023년 5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Paul Jung

Pray

98문 |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99문 |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를 지도하시려고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에 관해 우리를 지도하시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한 형태인데,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까 봐 주저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때때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너무 커서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진실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저앉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들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소망을 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요리 178문답과 함께 보면,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마땅한 은혜들을 베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나 사도들에게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분으로 모시지 않는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카톨릭은 스스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제들을 통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근심, 걱정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감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십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요청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공급받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참된 신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상과 기도



1.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하나요?
2.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굽어 살피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에 만족하는 신자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문구로 마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효력 없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니까 따라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간구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방법을 강구해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제사장을 허락해 주셨고,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러지고,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더욱 묵상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소망,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1. 기도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요? 기도의 끝에는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2.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적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언, 행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만 참 소망과 기쁨을 두길 기도합니다.

기도회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이들은 술술 이야기하는데 나만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진 않았나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무분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간구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와 위정자, 형제와 원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향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의 평강이나 자신, 타인,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과 반대되는 불법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겸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기쁨과 은혜가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참 능력이에요. 호흡입니다.



묵상과 기도



1.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2.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혹 장난감 가게 앞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곤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과 자녀의 장면입니다. 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며 있는 힘껏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대로만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린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나의 원함과 바람만을 쉴 새 없이 나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린아이 칭얼 거리 듯한 기도를 용납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강하게 막아서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떼를 쓰기도, 의심하기도,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베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다리시기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기도의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힌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은 기도라도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는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방향성을 설정하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상과 기도



1.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2. 나의 기도는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지하고 완악하지만 주님 가르치시고 인도 하사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줄줄이 읊어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구하며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쏟고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머리말 :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간구	1.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 나라에 임하시오며
	3.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위한 간구	4.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맺음말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옵나이다 아멘	

먼저 머리말을 통해 기도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를 향한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마음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1.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2. 하나, 하나 꼼꼼히 읽고 그 의미들을 묵상해봅시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미니홈피 가정예배

Miniature of Heaven, Home in Peace



제 98문 |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방성이 강합니다.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따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못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도 말입니다. 즉, 부모님은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모방의 사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모방의 사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슈퍼맨이 아닙니다. 부모도 결국엔 죄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언제나 길을 잃은 수 있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겸손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자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문화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

- 1) 오늘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대표로 위의 '설교문'을 읽습니다.
- 2)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문화가 있나요?
- 3) 우리 가정은 언제 기도하나요?.
- 4) 인도자의 '가정기도문' 낭독으로 마무리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Our Father in heaven,
may your name be honored*

100문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주기도문의 서문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려는 아버지께 자녀가 나아가듯이,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101문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제일 처음에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소원을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자랑스러워 하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자녀가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자녀를 입양할 때, 아버지 없는 아이에게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주기로 선택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매우 큰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 주려 합니다. 자녀가 자랄 때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입양된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아버지는 아이 말을 들어 줍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아이에게 이미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로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묵상과 기도



1. 기도할 때나 평상시에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고백을 많이 하시나요?
2.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이며,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Our Father in heaven

2024년 5월 28일 (화)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부모공경 #하나님 아버지 공경

전보아스 목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우리 아버지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첫 구절은 또한 우리가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므로 우리가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반면, 우리는 죄 된 피조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공손할 뿐 아니라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한 자녀는 아버지께 와서 자신에게 당장 집중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 아이는 정중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라고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손으로 당기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무례히 요구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정중하게 말하고 존경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명령하듯 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묵상과 기도



1.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2.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결코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중하게 기다리게 하소서.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기꺼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값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아버지에게 갈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 말고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화내며 울고 소리 지르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으박지릅니다.

반면 지혜롭고 순종하며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압니다.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버릇없는 자녀처럼 굴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합니다.

목상과 기도



1.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2.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May your name be honored

2024년 5월 30일 (목)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전보아스 목사

수많은 기도제목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더 편해지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의 건강 회복과 여행 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요한 돈을 벌 수 있게 좋은 직장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할 예정인데,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기도의 간구 내용을 주 못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엔 여섯 가지 간구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만 우리 삶을 편하게 해 주는 것과 관련 됩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영적인 것과 관련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체적인 것들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공경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데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반면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지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죄지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



1.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합니다.
2. 나의 간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육체적인 것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것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May your name be honored

2024년 5월 31일 (금)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보아스 목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원하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된 욕망이 자주 방해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을 더 위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으로나 죽음으로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역할은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



1.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나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미니홈피 가정예배

Miniature of Heaven, Home in Peace



제 100문 |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는 아버지께 자녀가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친구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사달라고 요청하나요? 아마도 엄마나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화내고 울고 소리 질러도 부모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소원들이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걸까요?

정답은 No! 아니예요~ 때로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불량식품은 정말 맛있지만 우리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사달라고 때를 써도 부모님은 잘 사주시지 않을거예요. 또, 총과 칼 같은 물건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달라고 해도 부모님은 절대 주시지 않을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친구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소원들 들어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위험하거나, 전혀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이번에도 정답은 No! 아니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주실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구해야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나눔 질문

- 1)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 2)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3) 우리 친구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봐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기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r kingdom comes

102문 |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 그곳에 거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103문 |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두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이동완 목사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오늘의 문과 답을 읽으면서, 문답의 내용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위의 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 속에는 오늘 문답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잡음을 인정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엡2:2]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지금 사탄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중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천상과, 이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영역으로서 '공중'을 뜻합니다. 사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결코 공상소설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 입증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천상의 거룩한 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난리와 재난과 기근과 전쟁은 사단이 공중에 권세를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지구적으로, 전가정적으로,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는 밟혔지만, 아직 그 잔당이 공중의 권세 잡았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완성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이 현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공중의 권세'를 대항하기 위해 다시금 말씀으로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하는 과정이선명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 주소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두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목상과 기도



1.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인가요?
2.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3.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에베소서 6장 12-13절 말씀을 읽고, 결단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과도기이며, 여전히 사단의 공중권세 잡았음을 기억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분투하는 거룩한 용사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까?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 그곳에 거하게 되도록 기도하며 ...

이동완 목사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그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어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가 흥왕되길 소원하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엡 3:14-15]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제목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잡은 사단은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거룩을 훼방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기도함으로 모든 민족을 위해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먹구름을 드리우며 하늘의 뜻을 가리려하고, 이 땅을 자신의 손아귀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때 성도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 땅과 모든 민족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먹구름을 뚫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먹구름 사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이 땅에 내리찍어 생명을 움트게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나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내용은 에베소서 3장 16-21절 말씀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속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인간의 내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내면이 그리스도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되며,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흥왕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다운 외연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속사람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



1. 사단의 공중 권세를 이기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하나요?
2.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3.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기도문을 작성해보세요.

(오늘은 위에서 작성한 기도문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동완 목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인 과도기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으며, 이것은 그의 권세에 치명타를 입힌 것을 뜻합니다.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을 ‘부활’로 이기심으로 그 나라는 ‘이미’ 멸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다시오심’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합니다. 그 분은 교회를 권면하면서도 ‘자신의 오심’을 말하고 있고, 계시를 펼칠 때에도 ‘자신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오심. 이 다시오심이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다시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에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라, 구약의 언어의 변형으로 봅니다. 특별히 구약에 모세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가 손을 들면 전세가 유리해지고, 팔이 지쳐서 내리면 전세가 불리하게 됩니다. 이 때 모세의 팔을 ‘안정되게’ 고정하기 위해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여기에서 ‘안정되다’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고정된 마음, 신뢰하는 믿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아멘’ 해야합니다. 그 아멘의 모습은 첫 번째, 반드시 다시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고정된 마음으로 신뢰하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팔을 들고 버티는 것과 같은 고되고 힘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고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를 주셨고,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상과 기도



1. 이미와 아직을 설명해보세요.
2. 아멘의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3. 아멘의 삶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적용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아멘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다하지 않도록, 견인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동완 목사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간구에 대한 '문답'을 다시금 읽으며, 그 내용을 집어내보면 좋겠습니다. 위의 문답을 한 번 읽어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기 보다는,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놓여서 그것을 더욱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연약함의 비천함을 품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8절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롬8:6-8]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소속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즉 적대적 관계입니다. 물론 육신에 속한 자들(불신자)도 가끔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적이 자신의 배에서 동료를 돕고 청소를 잘한다고 해서, 해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먼저 우리의 소속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께 항복함으로 우리의 소속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변하였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할 때, 감정적으로 불편해질 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탐심에 이끌릴 때, 육신의 정욕에 쫓길 때, 우리는 '아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일삼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편인 우리는 그분의 영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죽을 육신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11절)



목상과 기도



1.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 있나요?
2.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기꺼이 알고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동완 목사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로마서 8장 12-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롬8:12-13]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먼저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말은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정사정 없이 온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우리는 약하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결코 귀여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와 참혹한 전쟁은 모두 그 작고 귀여운(?) ‘미움’이라는 죄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속에서 잠시 잠깐 스쳐지나가는 죄된 생각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된다면, 쉽게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자라면 언젠간 큰 울무가 되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을 기억하며, 경계하고 경책하며, ‘인정사정’없이 꺾어내고 싸워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실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막 7:2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빛진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무엇에 빛진 것입니까? 십자가에 빛진 것입니다. 우리가 갇아야 할 죄의 덫가를 대신 갇아주신 그리스도께 빛진 것입니다. 이 빛진 마음, 은혜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수련, 고행, 애씀, 분투 이전에 ‘빛진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빛진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 빛진 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단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



1.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2. 노력과 고행 이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3.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새겨봅시다.

그리스도께 빛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 의식 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미니홈피 가정예배

Miniature of Heaven, Home in Peace



102문 |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통왕하며
다른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영광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OO아 오늘은 세계 2차 대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혹시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원래는 독일의 히틀러가 매우 우세했지만, 하나의 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 그것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이야. 노르망디는 독일군의 군수보급품을 끊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어. 연합군은 그 노르망디를 탈환함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지. 많은 독일군은 보급이 끊기가 힘들 수 없었고, 도망가기에 바빴어. 연합군은 이제 독일군을 쫓아가며 항복받을 일만 남았지. 얼마의 시간 후에 히틀러는 항복하고 연합군은 승리하게 되었어.

예수님께서서는 전세를 역전시키신 분이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고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에게 치명타를 날리셨지. 이 부분을 창세기에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뱀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예언이 있어. 머리가 상한 것을 매우 치명적인 상처겠지? 그와 같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 하지만, 치명타를 날렸지만,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항복을 받을 일만 남았지.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단다. 예수님께서 치명타를 날리셨고, 이제 사단이 항복할 그 날을 기다리는 것 말이야.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여전히 남은 사탄의 잔당과 싸워야해. 영적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아직 싸움이 필요해. 그리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해.



나눔 질문

- 1) 오늘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대표로 위의 '설교문'을 읽습니다.
- 2) 자녀에게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세요.
- 3)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할 이웃을 나누어보세요.
- 4) 인도자의 '가정기도문' 낭독으로 마무리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에 말씀의 능력과 검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bread and forgiveness of sins

104문 |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좋은 것들을 충분한 분량으로 받도록, 또한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도록 기도합니다.

105문 |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앞 세 가지 간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결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한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보면 기도의 초점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 간구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104문은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에 104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좋은 것들을 충분한 분량으로 받도록, 또한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도록 기도합니다.

후반부의 첫 간구는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힘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성도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은총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두더지는 땅속에서 벌레나 식물 등을 먹고 살아가며 심해에 있는 수중 생물들은 바다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태양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더지는 먹이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심해에 있는 수중 생물 또한 전혀 먹이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치 어두운 곳에서 태양이 필요 없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



1.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나요?
2.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전해봅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하시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네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대요리문답의 내용들을 나누어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요리문답에서 네 번째 간구에 대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은 복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 복들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도 마땅하며, 그 복들 자체가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복들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복들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그 복들을 부당하게 바라고 얻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에덴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거기서 어떠한 부족함도 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으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완벽했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19)** 완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들은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복들을 다시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 없는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방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



1.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하나님 주신 완벽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해봅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완전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간구에 대해 대요리문답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모두 날마다 정당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응답을 기다리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애로운 지혜에 가장 알맞게 보이는 그 충분한 선물 등을 누리기를, 그리고 그 선물 등을 거룩하고 충분하게 사용하여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그 선물 들에 만족하게 되기를, 또 우리의 생계와 안락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주시든 부족하게 하시든, 우리는 자족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족'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족하기 위해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창세기 3:19 상반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데살로니가후서 3:10)"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 내일의 것을 비축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저축도 재테크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를 돕고 후원해야 하며 또한 기회가 되는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 생명 유지와 자신의 직분을 위해 그리고 더 풍부하게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일에 있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자족함을 가져 만족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상과 기도



1.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셨기에 우리가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Forgiveness of sins

2024년 6월 13일 (목)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죄를 #사하여주시옵고

김기원 전도사

105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먹을 것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제는 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은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죄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모두가 배부르고 따뜻한데 왜 죄를 짓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성품까지 완벽한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남의 일처럼 보거나 관념적인 태도 도덕적인 이야기로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중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죄를 직시하고 죄의 문제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훈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시 51:1)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죄에 대한 대가를 충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직시했다면 이러한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또한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며 돌보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상과 기도



1.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있습니까?
2.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것 같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넓은 아량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Forgiveness of sins

2024년 6월 14일 (금)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죄를 #사하여주시옵고 #도덕적우월감 #아닌 #겸손함으로
김기원 전도사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해 대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본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사면 받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총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으며, 용기를 내어 기대하게 됩니다.

SNS를 보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도덕적 우월감’ 때문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것은 기만적이면 분열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 아래에 선 겸손을 위자하여 은밀하게 남 위에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는 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몸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우리 죄를 위한 형벌로 여겨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 있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공로가 없기에 우리의 도덕적 우월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과 기도



1. 우리의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2.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와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회개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니홈피 가정예배

Miniature of Heaven, Home in Peace



제 105문 |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그것을 구하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에 빛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갚을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빛을 갚을 다른 방법을 마련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이 어긴 법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 자기 백성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진 빛을 갚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완전한 용서 하심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기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 질문

- 1) 오늘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대표로 위의 '설교문'을 읽습니다.
- 2)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3) 내가 용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용서했던 경험을 나누어봅시다.
- 4) 인도자의 '가정기도문' 낭독으로 마무리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값 없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새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에 무한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106-107 문

Amen

106문 |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또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7문 |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중에 용기를 얻을 것과,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 주신다는 확신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생활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거의 동시에 찾아오곤 합니다. 먼저는 Test로써의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는 이들을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더욱 잘 기억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분량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재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는 Temptation으로써의 시험입니다. 이는 한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택함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버려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의 유혹은 내 마음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 보십시오. 무엇이 중심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인가요? 그렇다면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비참함에 빠질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길 바라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상과 기도



1. 시험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2. 주기도문이 말하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의 하나님.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강하신 주님께 피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쾌할 정도로 더러운 오물을 손으로 파헤치며 진주를 찾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첫 번째 유익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님께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32**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그분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무엇이 있든지,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돌아온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주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강하고 능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유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39**을 통해 바울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어떤 유혹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길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은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의 손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 앞에서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연약한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1. 시험의 유익은 무엇이 있나요?
2. 시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유혹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의 부재"라고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은혜의 결핍 등을 의미합니다. 혹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만약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서 내게 나쁜 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생겨난다면 전혀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도 만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본성은 그 죄의 유혹 앞에 몹시 연약합니다. 그런 탓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길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결코 멈춰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 전까지 세상에 악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우리를 늘 유혹하며 고통을 주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유혹 받고 고통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혹, 끊임없이 찾아오는 악으로 인해 지쳐버렸다면, 그 마음마저 주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 즉시 **선의 임재를 느끼며, 이미 악에서 구원 받았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충만 속에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



1.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무엇이라 설명했나요?
2.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선하신 주님. 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은 일종의 '송영'입니다. 송영이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주기도문의 송영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가 기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은 우리에게 무척 큰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는 이 고백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18**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분을 높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평소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22:20**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자의 삶에는 늘 송영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은 공동체적 지지를 받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고 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 역시 예배를 마칠 때 송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고백으로 마쳐집니까? 어떤 모양으로 시작했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믿음과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마쳐지나요? 아니면 끝까지 나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기도로 끝나나요?

송영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참 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자들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귀하심을 알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마치며 믿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아멘"**이라 고백합시다.

묵상과 기도



1. 송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송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로 구해보고 송영으로 마쳐 봅시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찬양하기 바빴던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날마다 송영의 고백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함께 하는 해피밀 시즌 2가 마무리 됩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 해피밀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신학 전공이 아닌 이상 교리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매일 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교리와 조금은 친밀해지고 은혜도 누리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짧게 복습하고 또 교리의 통일성을 발견하며 이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입니다.** 제1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107문은 무엇이었나요? '송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문답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답은 그것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리의 모든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교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죄와의 연합만 이루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죄와 하나되었던 우리의 영혼과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리를 배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에 일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입니다. 부디 매일 송영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주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Soli Deo Gloria!*

묵상과 기도



1. 교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해피밀 시즌 3도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미니홈피 가정예배

Miniature of Heaven, Home in Peace



제 107문 |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중에 용기를 얻을 것과,
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들어 주신다는 확신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만이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밥집에 가서 마라탕을 주문할 수 있습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국밥을 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른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기도문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신앙 생활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귀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 1) 오늘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대표로 위의 '설교문'을 읽습니다.
- 2) 5호 해피밀 전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 나눠봅시다.
- 3) 주기도문에 맞게 나의 기도를 새롭게 하며 개인적인 적용과 기도제목을 나눠봅시다.
- 4) 모든 구성원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다함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Ad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평안교회

E-mail peacechurch@gmail.com

Homepage www.peacechurch.kr